



한라포커스 제주도소방본부-연동119센터 '통합 신청사' 이전 논의(상)

컨트롤타워?... 지진나면 오히려 무너질 판

2011년 도소방본부 청사 안전등급 'E'... 재건축 대상 고층 건물 밀집 연동 관할센터엔 고가사다리차 없어

제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긴박하게 움직이는 곳이 제주도소방 안전본부다. 구조를 요청하는 대다수 신고 전화가 본부 청사에 있는 119종합상황실로 들어온다. 119종합상황실은 접수한 신고를 토대로 각 소방서에 출동 지시를 내린다.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소방안전본부가 정작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부 청사는 낡고 내구도가 떨어져 지진을 견뎌내기 힘들다. 본보는 도내 소방청사의 문제점과 현재 논의되는 대안을 두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안전등급 최악=제주시 연동도의회 뒤편에 있는 소방안전본부 청사는 소방서, 119센터 등 제주에 있는 30여곳 소방기관 건물 중 두 번째로 오래됐다. 지어진 지 39년이 지났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1년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그해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본부 청사는 E등급으로 판정됐다. 정밀안전진단은 건물 안전도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 이하부터 붕괴 위험이 있어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된다. D등급은 공공기관의 추가 검증을 거쳐 재건축 여부가 가려지지만, E등급은 그럴 필요 없이 곧바로 재건축 대상이 된다. 본부 청사 안전진단을 맡았던 대한산업안전협회도 '재건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본부 청사는 예산·부지 확보 문제로 지금껏 재건축되지 않았다. E등급 평가이후 건물 일부에 한

해 내진보강만 이뤄졌을 뿐이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당시 내진보강은 119상황실 등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건물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신축같은 방법이 없다"면서 "또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점점 근무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점도 청사 신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도 소방본부는 청사 신축에 더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건물을 허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겨 짓겠다는 것이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부지 확보 비용이

들지 않는 제주도 소유의 도유지를 활용한다면 신청사 이전이 재건축보다 예산이 덜 든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증·개축이든 신축이든 119상황실은 단 한순간도 기능을 멈춰선 안된다"면서 "고도의 기능을 유지하며 고가의 상황실 장비를 이전해야 해 한번 이전비용만 55억원이 드는데, 만약 지금 자리에서 재건축을 하면 완공 때까지 임시로 머물 곳에 장비를 옮기느라,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장비를 옮겨야 해 이전 비용이 두배로 든다. 결국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신청사 왜=새 건물이 필요한 곳은 또 있다. 본부 청사가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면 연동119센터는 공간 협소 문제를 겪고 있다.

연동119센터는 도내 소방기관 건물 중 가장 먼저 지어진 곳으로 준공된 지 4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제주시 연동에는 롯데시티호텔 등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섰다. 그러나 연동을 관할하는 연동119센터에는 고층건물 화재 진화에 필요한 고가사다리차가 없다. 덩치 큰 고가사다리차가 자유롭게 출동하려면 진입로 등에 최소 12m에 이르는 회전 반경을 확보해야 하는데, 연동119센터는 부지가 협소해 이 반경을 확보할 수 없다. 고가사다리차가 배치돼도 무용지물이다.

새 건물이 필요한 소방기관이 2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고민 끝에 연동119센터와 본부 청사를 합친 '통합 신청사'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보지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바로 옆 도로관리과 부지가 거론된다. 이상민기자



건립된지 40년 가까이 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청사가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기자

자치경찰, 관광부조리와 전면전 돌입

불편사항 분야별 대책마련 신고센터 개설 원스톱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그동안 제주관광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관광부조리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신속한 관광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원 지사 핫라인 관광불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목소리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한달간(7.6-8.5) 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79건이며, 접수와 동시에 자치경찰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현장 출동에 조치했다. 그 결과 그간 민원처리 소요기간 7일이었던 것에 비해 2.3일로 평균 5.7일 단축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주요 불편사항은 성수기 렌터카 요금 불만(17건), 환경 및 시설 개선 요구(16건), 소비자 분쟁(16건), 코로나19 방역 강화(6건) 등 순이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숙박산업 저해 및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관광경찰과 지역별 책임 전담반(5개조 10명)을 편성해 현장 단속 및 제법을 추적한 결과 8월 현재 116건을 단속해 사법처리 중이다. 이번 단속활동으로 숙박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안전사각지대 해소로 관광객 안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단은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유관 부서 합동 '관광순찰반'을 운영, 해수욕장 숙박요식 분야 등 주기별 테마를 선정해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한 개선으로 국민정서에 맞는 공정제주관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건설경기 침체 여파 건축물 철거도 '뚝'

올해 266건... 전년보다 49건 ↓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건축물 철거도 줄고 있다.

제주시는 2020년 상반기 관내 건축물 철거 건수는 266건(5만25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5건(4만9994㎡)보다 49건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 철거 건수가 137건(2만4987㎡), 동 지역이 129건(2만5269㎡)이다.

건축물 철거는 2017년 891건

(18만1888㎡)에서 2018년 718건(11만1754㎡), 지난해 582건(10만9147㎡)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철거 건수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전체 면적 500㎡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 지하층 포함 4개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공사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이상민기자

도항선-어선 충돌

서귀포 해상에서 우도를 오가는 도항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성산항에 입항했으나 어선인 B호는 기관실 입구가 내려앉은 등 파손 정도가 심해 해경에 의해 성산항으로 예인됐다.

>> 사진 서귀포해경은 도항선과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해기자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교체 추가 접수

도, 용량 따라 설치비 9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에 15억원을 투입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용량에 따라 업체당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정부 포함)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배출시설 인·허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제주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18억 5400만원을 투입해 36개소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2020년 제주자연 대청결 및 환경의식 혁신 운동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총 7회에 걸쳐 여름 등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합니다. 환경교육 전문가가 함께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제주도자원봉사센터 (지역-제주시, 봉사분야-환경보호-환경정화) 참가자 전원 1365 포털사이트 가입 필수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

■ 일시 및 장소

일 자	장 소	신청마감일
20.08.18	바굼지오름 (사계리)	20.08.17
20.08.20	당산봉 (고산리)	20.08.19
20.08.22	높은오름 (송당리)	20.08.21
20.08.26	고군산 (동홍동)	20.08.25
20.08.29	감남오름 (안덕면)	20.08.28
20.09.05	이송지오름(중문동)	20.09.04
20.09.12	새별오름 (애월읍)	20.09.11

마감 시간은 마감일의 17:00입니다.

■ 신청인원
1회당 최대 20명 (참여 인원은 선착순 마감합니다. 버스로 이동 - 개별 차량 이용도 가능)

■ 집결지 및 출발시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 오전 08시 30분
※ 발열체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은 필수입니다.
※ 점심 제공 및 자원봉사시간 인정(최대 4시간).

■ 문의
카카오톡 채널 -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 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